(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261-286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261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 부대 상황과 세부 사항 묘사 기능을 중심으로 —

조재천*

1. 들어가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1] 신약에 나오는 괄호 중 사본상 이문을 제외한 '괄호 어구'는 모두 42개이다. 나는 이전 연구에서 그중 역주 기능, 방백 기능, 그리고 근거 제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의 괄호 어구를 다루었다.[2]

먼저 이전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요약해 보겠다. 첫째,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역본의 독자는 현재의 언중(言衆)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부호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괄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괄호의 사용 방식이 우리말 어문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성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문 규정에서 다소 벗어나거나 어문 규정에 없는 용법을 고안할 수도 있다. 둘째,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의 일차적 연원은 『셩경 개역』(1938)[3]이며, 『셩경 개역』은 두 영역, KJV와 English Revised Version (이하 ERV, 1881)[4]로부터 크게 영향을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고대 기독교와 유대교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신약학 부교수. jcho@jj.ac.kr.

1)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2005).

2) 조재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 역주, 방백, 근거 제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7 (2025), 111-141.

3) 『셩경 개역』 (서울: 셩셔공회, 1938).

4) *The Holy Bible, Conteyn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Newly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l Tongues, & with the Former Translations diligently Compared and Revised by his Majesties Special Comandement, Appointed to be read in Churches (London: Robert Barker, 1611); C. J. Ellicott,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받았다. 셋째, 『개역개정』의 괄호 어구 57개 중 "없음"과 사본상 이문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 42개를 그 구문론적, 수사적 기능에 따라 나누면 5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그중 역주 기능을 하는 10개, 방백 기능 4개, 그리고 근거 제시에 사용된 15개의 괄호 어구를 분석한 결과 괄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1개이고, 괄호를 지우는 편이 가독성과 정확한 이해를 위해 더 나은 경우가 24개이다. 나머지 5개는 괄호를 그대로 두어도 되고 지워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42개 중 검토되지 못한 나머지 13개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의 방법은 각 괄호 어구가 문맥 안에서 수행하는 구문론적, 수사적 기능을 규명하고 그것이 가독성과 본문 이해에 효과적이고 적합한지를 평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 어구의 연원을 따져 볼 것이며 다른 역본들과 비교 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2. 『개역개정』 신약 괄호 어구 분석 – 부대 상황과 세부 사항 묘사 기능을 수행하는 13개 어구

우리가 이 연구에서 분석할 13개의 괄호 어구는 다음 두 범주이다.

<표 1> 『개역개정』 신약의 괄호 어구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목록

범주	괄호 어구
부대 상황 (10개)	요 6:23; 고전 7:10중, 11상, 12중; 고후 12:2하, 3하; 갈 2:6중; 엡 2:5하; 골 4:10하; 계 20:5상
세부 사항 (3개)	눅 24:10; 요 4:2; 요 7:22중

2.1. 부대 상황을 묘사하는 괄호 어구 (10개)

여기서 다룰 10구절에는 서사와 논증의 주된 흐름에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대 상황(concurrent situation)을 서술하는 괄호 어구가 나온다. 부대 상황에 묘사된 인물과 사건, 상태는 주 문맥에 따라 묘사된 것들과 다를 수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있다. 집 안과 집 밖에서 서로 다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듯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서술한다. 그래서 주 문맥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괄호는 부대 상황 서술의 경계 지점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괄호 어구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괄호가 효과적인가? 또는 필요한가? 괄호가 없는 다른 역본들은 어떻게 읽히는가?

2.1.1. 요한복음 6:23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 이후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는 내용 중 한 부분이다. 『개역개정』의 모든 괄호 어구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셩경 개역』에 붙은 것을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 『셩경 개역』 번역자들은 십중팔구 KJV 또는 ERV로부터 이 구절의 괄호를 물려받았을 것이다.[5]

ERV	(howbeit there came boats from Tiberias nigh unto the place where they ate the bread after the Lord had given thanks)
『개역개정』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새번역』[6]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공동』[7]	한편 티베리아로부터 다른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나누어 먹이시던 곳으로 가까이 와 닿았다.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편 해안에서 시작한다. 거기에서 예수는 급식 이적을 행하셨다(요 6:1-14). 그날 저녁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는 뒤에 남으셨다. 하지만 밤에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었고, 그 상황에서 예수는 풍랑 이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했다(요 6:18-21). 그런데, 얼마

5) 이 구절뿐 아니라 아래 모든 구절에서 각 괄호 어구의 연원을 살피기 위해서는 『개역개정』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셩경 개역』(1938), KJV(1611), ERV(1881), 그리고 NTG[12](1923)의 해당 구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 Nestle and E. Nestl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ditio duodecima recognita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42개 괄호 어구가 각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논문 말미에 제시했다. "<부록 1> 『개역개정』과 그것의 추정 저본에서 괄호 어구 비교" 참조.

6)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7)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지나지 않아 무리가 그를 좇아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다(요 6:24-25).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발견한다. 그리고 예수는 무리에게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에 관해 가르치셨다(요 6:26-59).

무리가 예수를 찾아오는 과정이 22-23절에 설명되어 있다. 처음에 무리는 배 한 척 있던 것을 제자들이 타고 가버리고 예수만 홀로 남겨졌음을 인지했다(22절). 그래서 디베랴에서 배 몇 척이 예수를 찾아 급식 이적이 있었던 곳으로 건너왔다(23절). 그런데, 거기 예수가 안 계셨다(24상반절).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었는지를 모른다. 하지만 복음서 독자들은 알고 있다. 결국 무리는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독자 입장에서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를 떠올리며 무리가 예수의 신적 능력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급식 이적을 통해 무리가 예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집요하게 좇아다녔다는 정황도 알려 준다. 요한만이 복음서 저자 중 유일하게 급식 이적에 이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강화를 기록했는데, 22-23절은 그 두 단락을 정황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사 22-23절에 그러한 수사적 의도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괄호를 써서 표시해 주어야 할까?

『개역개정』과 그것의 저본들은 22절을 빼고 23절만 괄호로 묶었다. 23절에는 디베랴에서 배들이 왔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급식 사화에서 하늘의 떡 강화로 전환되는 정황 서술은 22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이어진다.[8] 게다가 24절의 "거기"는 23절에 언급된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이기 때문에 23절을 건너뛰어서는 24절을 이해할 수 없다. 즉, 23절은 주된 서사의 흐름을 보충해 주는 부수적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서사의 흐름이 단절되는 필수적 요소다. 반드시 앞뒤 구절에 이어서 읽어야 할 구절이라면 괄호로 묶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국역본을 포함한 어떤 현대 역본도 이 구절에 괄호를 붙이지 않았다.

---

8) 여기 흥미로운 본문 비평적 문제가 하나 제기된다. ERV가 저본으로 삼은 '파머 판' 그리스어 본문(E. Palmer,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에 23절의 첫 단어는 접속사(ἀλλά)이다. 네스틀레(E. Nestle)가 편집한 본문 NTG[1](1898)과 NTG[2](1899), NTG[3](1901)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NTG[4](1904)부터 이 단어가 ἄλλα(ἄλλος의 중성복수 주격)로 바뀌었고, 『셩경 개역』의 저본으로 여겨지는 NTG[12]에도 ἄλλα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셩경 개역』은 본래 『셩경젼셔』(1911)에 "적은"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문두에 "그러나"를 추가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개역개정』까지 이어졌다. 『새번역』과 『공동』은 ἄλλα를 살리기는 했지만 역접 접속사를 지우지 않고 보존했다. 저본의 단어가 ἀλλά인지 ἄλλα인지의 문제는 역본에 괄호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1.2. 고린도전서 7:10중반, 11상반, 12중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부부관계와 결혼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문의에 답하고 있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권면(1-9절)에 이어 10절부터는 기혼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한 권면이 나온다. 10-11절은 신자 부부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12절부터는 신자가 불신자 배우자의 이혼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룬다. 바울의 가르침의 기조는 결혼 생활의 유지이다. 신자 부부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 대목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는 괄호 어구가 들어가 있다(10절). 이 괄호 어구는 바울의 권면(παραγγέλλω)의 권위를 강화한다. 그것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9]

ERV	But unto the married I give charge, *yea* not I, but the Lord, That the wife depart not from her husband
『개역개정』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새번역』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혼 금지 명령의 역사적, 신학적 기원을 서술한다는 면에서 이 괄호 어구는 일종의 부대 상황을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부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괄호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의 경우, 괄호가 없다면 이혼 금지 명령의 권위가 더 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12절에서는 권면 대상이 바뀐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신자들을 말한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20절)라는 원칙에 따라 불신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권한다(12, 14절). 다만, 상대방 측에서 갈라지고자 한다면, 그 또한 부르심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이고 이혼할 수 있다(13, 15절). 그리고 이 권면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12절).[10]

---

9) 이혼을 금하는 예수 말씀은 마가복음(막 10:11//마 19:9)과 Q(눅 16:18; 마 5:32)의 이중 전승으로 제시되어 있다.

10)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께서 신자와 불신자의 혼합 결혼이라는 상황에 대해 논하거나 가르친 바가 없다.

ERV	But to the rest say I, not the Lord: If any brother hath an unbelieving wife, and she is content to dwell with him, let him not leave her.
『개역개정』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새번역』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12절과 10절 괄호 어구의 내용은 정반대이지만 기능은 동일하다. 둘 다 바울이 내리는 권면의 권위를 표상하는 부대 상황을 서술한다. 10절에서처럼 여기에서도 괄호는 필수적이지 않다. 괄호를 벗기더라도 논리나 수사적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10절과 12절 공히, KJV나 ERV에 괄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개역개정』 외 어떤 현대 역본에도 괄호가 없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

ERV	(but and if she depart, let her remain unmarried, or else be reconciled to her husband); and that the husband leave not his wife.
『개역개정』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새번역』	–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11)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의 괄호는 『셩경 개역』 개역자들이 고안해서 붙인 것이다.

11상반절의 괄호 어구는 10절의 권면, 즉 이혼 금지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 혹은 부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에게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원래의 배우자와 재결합해야 한다. 다만, 11상반절의 괄호 어구는 아내들의 이혼 금지를 명령한 10하반절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만 해당하는 부칙이 된다. 즉, 10하반절과 11상반절이 합쳐져서 아내들에게 적용되고, 그러고 나서 11하반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권면이 나온다. 11절 전반부는 앞 절과 이어진 내용이고 후반부는 대조적인 내용인 셈이다.

따라서, 괄호 또는 줄표로써 11상반절과 하반절을 구분한 것은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KJV는 이 구절에 괄호가 없었지만 ERV는 괄호를 붙였다. 『셩경 개역』(그리고 『개역개정』)은 아마 ERV를 따랐을 것이다. NTG[12]와 이후 NTG[28][12])에 이르기까지 비평본문의 편집자들은 괄호 대신 줄표를 썼고, 이것이 몇몇 현대 역본들에 나타난다(『새번역』, 『새한글』[13]), ESV[14]), NRS Updated Edition [이하 NRSUE, 2021][15])). 다만, 『공동』처럼, 괄호나 줄표 없이 본문에 이어지더라도 해석상 큰 어려움은 없다.

2.1.3. 고린도후서 12:2하반, 3하반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이 사도적 권위의 정당성을 논변하는 서신이다. 그 서신을 관통하는 핵심어 중 하나가 '자랑'이며, 특히 11:16 이하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겪었던 고난과 비천함을 오히려 자랑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12장 첫 단락에서 그는 자신이 체험했던 영적 황홀경을 언급한다. 언뜻 보기에 이 단락의 목적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신앙을 존중하도록, 더 나아가 그의 사도직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ERV	2 I know a man in Christ, fourteen years ago (whether in the body, I know not; or whether out of the body, I know not; God knoweth) 3 such a one caught up even to the third heaven.And I know such a man (whether in the body, or apart from the body, I know not; God knoweth)

12) E. Nestle,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13)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14)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Wheaton: Crossway, 2001).

15)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Updated Edition* (Washington: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2021).

『개역개정』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새번역』	2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3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공동』	2 내가 잘 아는 그리스도 교인 하나가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간 일이 있었읍니다. –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 3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일(2절),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일(4절)을 말한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체험을 서술하기 전, 미묘한 문장 하나를 반복해서 덧붙인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문장에 담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 황홀경 체험의 자기 초월적 성격을 표현했다고 보는 무난한 해석도 있지만,[16] 그보다는 이어지는 단락에서처럼(6-11절),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역설 혹은 ‘다소 어두운 유머’(a somewhat grim humor)의 수사적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17]

이 괄호 어구의 연원은 분명하다. 『셩경 개역』 번역자들이 2절과 3하반절을 괄호로 묶은 KJV, ERV를 따랐고 『개역개정』이 이를 그대로 받았다. KJV, ERV 번역자들은 이 괄호 어구가 논증의 흐름을 일정 정도 방해하면서 끼어든 삽입 어구라고 보았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NTG[12] 이래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문들도 이 어구에 줄표를 쳐 두었고 『공동』과 몇몇 현대

16) M. E. Thr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of the Corinthians*, vol. 2 (London: T&T Clark, 2004), 775-793.

17) P. Barn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7), 561-563.

영역본들도 줄표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괄호는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새번역』과『새한글』 같은 국역은 괄호나 줄표 없이 본문에 그대로 이어서 인쇄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거나 오석의 여지를 남기지는 않는다.

2.1.4. 갈라디아서 2:6중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정당성의 토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1:12)에 있음을 논증한다. 2:6에서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나 영향력을 지니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ERV	But from those who were reputed to be somewhat (whatsoever they were, it maketh no matter to me: God accepteth not man's person) – they, I say, who were of repute imparted nothing to me:
『개역개정』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새번역』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므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든 간에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들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제언을 한 일은 없읍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a-b-a’와 같은 모양이다. 일단, “유력자들 중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로 문장이 시작하고(6상반절). 관계대명사절과 또 다른 독립된 문장의 형태로 그들의 속성에 대한 서술이 첨가된 다음(6중반절), 다시 “유력자들”이 주문장의 주어로 등장한다(6하반절). 일종의 ‘재개’(resumptive) 구문이고 중간에 부대 상황을 서술하는 삽입구가 들어가 있다. 삽입구에 줄

표나 괄호를 붙여서 시각적으로 전후 문맥과 구분하는 방식은 흔히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괄호 어구도 자연스럽게 읽힌다.

이 괄호 어구는 KJV와 ERV에서부터 나타났다. 이것을『셩경 개역』개역자들이 받아『개역개정』에 물려 주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인『새번역』,『새한글』, ESV, NRSUE는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문을 따라 괄호 대신 줄표를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어 관계대명사 절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어순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괄호 또는 줄표이다. 어순이 보존되면 생각의 흐름, 논리의 순서도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6절처럼 주문장의 주어('유력자들')가 한번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온 다음, 다시 주문장에서 그 주어가 나타나면, 굳이 괄호나 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공동』의 경우에는 재개 구문을 변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고 삽입구를 문장 앞으로 빼서 배치함으로써 우리말 문장의 가독성을 높였다.

2.1.5. 에베소서 2:5하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논술한다. 특히 2장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새 사람'(14-15절)으로 지어지고 평화를 누린다는 주제가 두드러진다. 그 주제를 전개하기에 앞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서술한다. 그들은 과거 허물과 죄,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졌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5상반절).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6절). 그 중간에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짧은 주석을 달았다(5하반절). 이렇게 보면 5-6절의 논리 구조는 위 갈라디아서 2:6과 흡사한 'a-b-a'의 재개 구조이다.

ERV	5 even when we were dead through our trespasses, quickened us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have ye been saved), 6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made us to sit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개역개정』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새번역』	5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

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공동』 5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읍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읍니다. 6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읍니다.

또 갈라디아서 2:6의 경우처럼 이 괄호 어구도 KJV와 ERV로부터 물려받았고,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문에 나타나는 줄표는 여러 현대 역본들에 답습되었다(『새한글』, ESV, NRSUE). 반면, 괄호 없이 5상반절-5하반절-6절의 연계를 강조한 『새번역』이나 『공동』을 읽더라도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가독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 5상반절과 6절의 서술 대상이 '우리'이고 중간에 삽입된 5하반절의 서술 대상은 '너희'이기 때문에 삽입구적 성격이 도드라지기는 하다. 그러나, 이 단락의 논리에 있어서, '우리'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희'뿐이고 '우리'는 아닌가? '우리'와 '너희', 둘 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에베소(와 다른 여러 도시)의 신자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18] 종합하자면, 여기 쓰인 괄호의 효능은 불분명하고 따라서 괄호를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편이 나을 것이다.

2.1.6. 골로새서 4:10하반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4:10-14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을 나열한다. 그중 두 번째로 거명된 이가 마가이다. 각 사람마다 간략한 수식어 또는 바울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덧붙이는데,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전에 지시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10하반절을 덧붙였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삽입구이며 부대 상황을 서술하는 어구이다.

---

18) 그렇다면 5하반절의 수사적 기능은 무엇인가? 바르트(M. Barth)는 5-6절이 실제 예배에서 사용된 교창 성가(antiphonal hymn)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5상반절과 6절은 회중이 부르는 부분이고 5하반절은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 매기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M. Barth, *Ephesian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Chapters 1–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20-221. 이런 예전적 정황을 반영해서 5하반절을 감탄문으로 번역한 역본도 있다: "[God] made us alive with the Messiah even though we were dead in trespasses. By grace you are saved!"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The Holy Bible,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2004).

ERV	Aristarchus my fellow-prisoner saluteth you, and Mark, the cousin of Barnabas (touching whom ye received commandments; if he come unto you, receive him),
『개역개정』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새번역』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공동』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르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도 문안합니다. – 마르코가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

이 괄호 어구도 KJV와 ERV에서 기원하고, 네스틀레-알란트 본문에도 괄호가 붙어 있다(매우 드문 경우). 그것을 따라 몇몇 현대 역본들에도 괄호가 나타난다(ESV, NIV[19], 『새번역』). 또, 『공동』이나 NRS[20]처럼 줄표를 사용한 역본들도 있다. 이처럼 10하반절을 삽입구로 보고 괄호나 줄표를 사용한 경우가 많지만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괄호나 줄표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괄호가 시작하는 지점에 그리스어 원문은 관계대명사절이다(περὶ οὗ ἐλάβετε ἐντολάς). 그리스어 비평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등 서양어의 경우 그리스어 관계대명사절은 그냥 관계대명사절로 바로 옮기면 된다. 거기에 괄호까지 붙일 필요가 없다. 괄호는 그다음에 나오는 ἐάν에서 시작해야 한다.[21] 국역에도 이 점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한글』의 10하반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 …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한테 가면 잘 맞이해 주십시오.)

---

19)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lorado Springs: Biblica; Grand Rapids: Zondervan, 1978; rev. 2011).

20)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ashington: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89).

21) 그래서 NRSUE에서 줄표의 위치가 ‘concerning’ 앞이 아니라 ‘if’ 앞이다: “Aristarchus my fellow prisoner greets you, as does Mark the cousin of Barnabas, concerning whom you have received instructions — if he comes to you, welcome him.”

→ …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한테 가면 잘 맞이해 주십시오.)

둘째, 삽입 어구를 꼭 표시해야 한다면 괄호와 줄표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괄호보다는 줄표가 좋겠다. NTG[28]에서 괄호 어구는 딱 두 곳, 여기와 디모데후서 1:18에만 나오고 줄표는 20구절에 나온다. 훨씬 자주 쓰인 줄표로 통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네스틀레-알란트 본문이 현대 성서 역본의 저본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역도 비평본문을 따라 괄호 대신 줄표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22]

2.1.7. 요한계시록 20:5상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요한의 환상은 역사의 결말을 묘사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써 바로잡히고 인류는 영원한 운명을 앞두고 있다. 용, 곧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 년간 인봉될 것이다(20:1-3). 반대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는다. 그들과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 할 이들이 더 있다. 순교자들, 박해 가운데에서도 배교하지 않은 신실한 자들이다. 그들은 목 베임을 당했지만 천 년간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 살아날 것이다. 이 사건을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의 영광과 복됨을 설명하는 대목이 5-6절이다.

ERV	The rest of the dead lived not until the thousand years should be finished.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개역개정』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새번역』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공동』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5상반절은 신실한 순교자들 외 다른 사람들("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즉, 죽은 채로 천년을 보내야 한다. 이 어구는 부대 상황을 묘사하며 천년 왕국 그

22) 우리말 어문 규정상 줄표는 그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다(글의 부제에만 사용). 하지만 성서 국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체적인 부호 범례를 구축하면 된다.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이 괄호 어구는 KJV, ERV, 혹은 NTG[12]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셩경 개역』개역자들의 독자적 판단으로 괄호가 생겨난 것이다(『개역개정』은 그것을 답습했다.). 아마 이 어구를 주된 서사 흐름에 단절을 주면서 끼어든 삽입구라고 보고 괄호를 붙였을 것이다.

현대 역본 중에는 괄호나 줄표가 없는 것들도 있고(『공동』, 『새번역』, ESV), 있는 것들도 있다(『새한글』, NIV, NRSUE).[23] 괄호가 있는 역본들과 없는 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읽어 보면 '굳이 괄호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논리적, 신학적으로 설명하더라도, 괄호를 벗겨 냄으로써 "첫째 부활" 논의로의 전환이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부활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천 년 동안 죽은 채로 남아 있는 자들을 언급함으로써 부활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상반절이 부대 상황을 서술하는 부수적 어구가 아니라 "첫째 부활"을 정의하는 요소라면, 5상반절에 쳐진 괄호를 지우는 편이 낫다.

2.2.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괄호 어구(3개)

여기서 다룰 세 괄호 어구는 앞말 혹은 앞 문장에 세부 정보를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 문맥 '세부 사항'의 내용은 다르다. 첫 번째 것은 3인칭 복수 인칭대명사,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괄호 어구는 바로 앞말에 담긴 오류를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오류가 있는 특정 부분을 상세히 부각시켰다는 의미에서 세부 사항 묘사의 범주에 넣었다. 괄호로 묶여 있을 때 이 세 어구는 주된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세 구절 모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개연성과 근거를 조성한다. 그렇게 본다면 괄호는 불필요해진다.

2.2.1. 누가복음 24:10

누가복음 24장 부활 기사에서 10절은 빈 무덤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구절이다.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될 때 그곳에는 아리마대 요셉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23) 5상반절은 시내산 사본을 비롯해 여러 소문자 사본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개역자들이나 개정자들이 독자적인 사본 비평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 신약성서 대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에는 아예 5상반절이 본문에서 빠져 있다. M. Karrer,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ume 6: Revelation, Part 1: Tex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4); 조재천, "요한계시록 대비평본(ECM Rev)의 새로운 본문의 번역과 신학적 함의",「신학논단」120 (2025), 113-152.

었다(눅 23:55).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방문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들은 돌아가서 열한 사도에게 알렸다(9절).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11절). 이 두 구절 사이에 누가는 빈 무덤 증언자들의 명단을 집어넣었다(10절).[24]

ERV	Now they were Mary Magdalene, and Joanna,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 women with them told these things unto the apostles.
『개역개정』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새번역』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공동』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괄호는 다른 현대 역본들은 말할 것도 없고, KJV와 ERV에도 없다. 그렇다면 본래 『셩경 개역』 개역자들이 만들어 붙인 것을 『개역개정』이 그대로 받은 것이다. 개역자들이 여기에 괄호를 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구절이 서사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네 복음서 저자 중 누가만 여자들의 명단을 이 자리에 배치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빈 무덤 기사 첫머리에 명단을 두었더라면 서사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가 그렇게 한 데는 그 나름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어지는 11절의 근거 또는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절을 일부러 거기 놓았을 수 있는 것이다. 목격자들의 말이 사도들에게 왜 허탄하게 들렸는가? 대다수 주석가들은 그들이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5] 그렇다면 10절은 서사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도와주는 요소가 된다.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여서는 안 된다.

---

24) 이 구절의 번역은 간단하지 않으며, 마샬(I. H. Marshall)은 여섯 가지 가능한 번역을 검토했다.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8), 887.

25) 여성 증인들의 권위와 신빙성을 낮게 보는 당시 유대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는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712. 특히 그 페이지에 있는 각주 39를 참조하라.

2.2.2. 요한복음 4:2

요한에 따르면 예수는 공적 사역 초기부터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요 2:23). 그러고 나서 그는 갈릴리로 바로 귀환하지 않고 요르단강 유역 어디쯤에서 군중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셨던 것 같다(요 3:26).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세례받고자 모여들었고 그 소식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졌다(요 4:1). 이어지는 2절에서 복음서 저자는 방금 서술한 내용 중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다.[26]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많이 모여든 건 맞지만, 예수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주었다는 것이다.

ERV	(although Jesus himself baptized not, but his disciples),
『개역개정』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새번역』	–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
『공동』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이 괄호 어구는 마치 난외주처럼 부수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본문 서사의 흐름을 잠시 방해한다. KJV와 ERV 번역자들이 괄호를 붙인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셩경 개역』과 『개역개정』으로 이어졌다. NTG[12]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NTG[25](1963) 이래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문에는 이 구절에 줄표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비평본문을 저본으로 삼은 국역들(『공동』, 『새번역』, 『새한글』)과 다른 현대 역본들에(ESV, NIV, NRSUE) 모두 이 구절 앞뒤에 괄호 아니면 줄표를 넣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의 괄호는 유효한 수사적 기능을 수행하며 가독성을 높여 주는 적절한 문장 부호이다.

2.2.3. 요한복음 7:22중반

요한복음에 따르면 초막절을 기해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요 7:10).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안식일 위반이라는 비판(요 5:1-10)에 맞서 반론을 제기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즉 몸의 일부를 상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도 불법이 아닌데 하물며 사람의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한 것을 불법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26) 일부 비평적 주석가들은 2절이 요한복음의 최종 편집자에 의해 덧붙여졌다고 본다. J. R. Michaels,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0), 231-234.

가?(요 7:23). 이 주장에 뒷받침하는 두 가지 전제가 22절에 제시된다. 하나는 모세가 할례법을 정했다는 사실이고(22상반절),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사실이다(22하반절).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ERV	For this cause hath Moses given you circumcision (not that it is of Moses, but of the fathers); and on the sabbath ye circumcise a man.
『개역개정』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새번역』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공동』	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내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 사실 할례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

위에서 분석한 요한복음 4:2처럼, 이 괄호 어구도 바로 앞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한복음 4:2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요한복음 4:2에서 교정의 대상은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소문이었던 반면, 여기에서 교정의 대상은 예수의 말씀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 괄호 어구를 말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서사적 정황에서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방금 했던 말을 스스로 교정했다고 볼 수 있다.[27]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으며, 복음서 저자가 예수께서 포괄적으로 말한 것을 더 세부적으로 따져서 부연 설명했다고 볼 여지도 남아 있다.[28]

설사 예수가 괄호 어구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에 열려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자신의 실수나 무지를 교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논쟁 상대인 유대인들의 오류를 교정하려고 한 것일 수 있

27) Ibid., 445.

28)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처음 받아 실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창 17:10 이하). 하지만 시내산에서 할례를 율법의 형태로 성문화한 것은 모세였다(출 12:44 이하). 따라서, "모세가 할례를 주었다"라는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며, "할례가 모세에게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났다"라는 말도 맞다.

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단순히 모세의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할례는 안식일 법을 뛰어넘을(override) 수 있다.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모세 율법'에 담긴 권위는 부풀려져 있으며 그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논리는 잘못되었다.[29] 모세보다 크신 분, 모세를 넘어서는 분이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이 문장에 쳐진 괄호가 그러한 신학적 해석을 가로막거나 왜곡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말씀(22상반절)에 바로 이어서 괄호 어구가 놓여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방금 나온 말씀의 오류를 복음서 저자가 교정하는 논평인 것처럼 읽힐 가능성이 있다. 괄호를 벗겨 내면, 그 말이 예수 자신의 말씀으로 읽힐 여지가 확보된다. 결국, 괄호 어구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든, 그 해석의 가능성을 독자에게 열어 두려면 원문에서처럼 괄호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비록 KJV, ERV에서부터 괄호가 쳐져 있고,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문에는 줄표가 쳐져 있어서 대부분 현대 역본들이 괄호나 줄표를 사용했지만, 주석적 이유에서 여기 괄호는 벗겨져야 한다.

3. 괄호 어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개역개정』신약의 괄호 어구 42개 중 13개의 괄호 어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개역개정』신약 괄호 어구 13개 검토 결과

범주	괄호 어구	괄호 유지	괄호의 위치 또는 범위 조정	괄호 삭제
부대 상황 (10개)	요 6:23	지양	필요	바람직
	고전 7:10중, 12중	가능	불필요	가능
	고전 7:11상	바람직	불필요	가능
	고후 12:2하, 3하	바람직	불필요	가능
	갈 2:6중	바람직	불필요	가능

29) 카슨(D. A. Carson)도 이 괄호 어구에 반-모세적 논조가 깔려 있다는 관찰을 했다.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315.

범주	괄호 어구	괄호 유지	괄호의 위치 또는 범위 조정	괄호 삭제
	엡 2:5하	가능	불필요	바람직
	골 4:10하	바람직	필요	가능
	계 20:5상	가능	불필요	바람직
세부 사항 (3개)	눅 24:10	가능	불필요	바람직
	요 4:2	바람직	불필요	가능
	요 7:22중	지양	불필요	바람직

부대 상황을 묘사하는 괄호 어구 10개 중 괄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구절은 셋이다(요 6:23; 엡 2:5하; 계 20:5상). 특히 요한복음 6:23의 경우 만약 괄호를 유지하려면 괄호가 22절부터 시작하도록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괄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절 다섯이 있다(고전 7:11상; 고후 12:2하, 3하; 갈 2:6중; 골 4:10하). 단, 골로새서 4:10하반에서 괄호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두 구절(고전 7:10중, 12중)에서는 괄호를 두어도 되고 없애도 된다.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괄호 어구 3개 중 요한복음 4:2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른 두 구절(눅 24:10; 요 7:22중)의 괄호는 제거하고 본문에 이어 주는 편이 더 낫다.

4. 나가는 말

『개역개정』 신약에 나오는 괄호 어구 42개는 구문적 기능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분류된다(역주 제시, 방백, 근거 또는 설명 제시, 부대 상황 묘사, 세부 사항 묘사). 이전 연구에서 첫 세 범주(29개)를 다루었고, 이 연구에서는 나머지 두 범주(13개)에 속하는 괄호 어구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했다. 각 어구가 속한 근접 문맥과 광역 문맥 안에서 괄호 어구가 담당하는 수사적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본질이었다. 괄호 어구는 기본적으로 현대 독자들, 특히 성서를 역본으로 읽는 독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즉, 독자들이 특정 성서 구절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괄호의 목적이다. 만약, 괄호 때문에 오히려 성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방해를 받거나 오석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 그런 괄호는 지우는 편이 낫다. 이 연구의

결과 총 13개 괄호 어구 중 7개는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5개는 괄호를 없애 본문에 이어 주는 편이 더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머지 1개는 이러나저러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특정 시기, 특정 언어로 번역된 역본이라 하더라도 해당 언어를 사용한 대중에 의해 오랫동안 읽히게 되면 어느 시점에 와서는 거의 성서 원문에 준하는 권위를 지니게 되곤 한다. KJV, LB[30], 또는『개역개정』이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아무리 권위 있고 대중적인 역본이라 하더라도 역본인 한에 있어서 그 한계와 약점은 명백하다. 언어가 변천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역본의 개정, 혹은 전면 재번역의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다. 괄호는 번역의 일부분이며, 성서 원문에 후대 편집자, 번역자들이 더한 인위적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기존 역본의 재개정이나 재번역을 위해 괄호 어구를 전면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가 좀 더 좋은 국역 성서의 출판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향후 괄호 어구와 같은 여러 본문 부속(paratextual) 요소들(단락 구분, 단락 소제목, 그리고 특히 난외주)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괄호 어구, 부대 상황, 세부 사항, 부속 요소.
NKRV, Parenthetical phrases, Concurrent situations, Detailed information, Paratextual elements.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2월 27일)

30) M. Luther,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Revidierte Fassung 2017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6).

<참고문헌>(References)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2005.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셩경 개역』, 서울: 셩셔공회, 1938.

『셩경젼셔』, 죠션 경셩: 대영셩셔공회, 1911.

Ellicott, C. J.,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Karrer, M.,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ume 6: Revelation, 4 Par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4.

Luther, M.,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Revidierte Fassung 2017,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6.

Nestle, E. and Nestle, 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ditio duodecima recognita,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Nestle, E.,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Palmer, E.,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The Holy Bible, Conteyn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Newly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l Tongues, & with the Former Translations diligently Compared and Revised by his Majesties Special Comandement, Appointed to be read in Churches, London: Robert Barker, 1611.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Wheaton: Crossway, 2001.

The Holy Bible,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HCSB),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2004.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lorado Springs: Biblica; Grand Rapids: Zondervan, 1978; rev. 2011.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 Washington: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89.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Updated Edition (NRSUE),

Washington: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2021.

조재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 역주, 방백, 근거 제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7 (2025), 111-141.

조재천, “요한계시록 대비평본(ECM Rev)의 새로운 본문의 번역과 신학적 함의”, 「신학논단」 120 (2025), 113-152.

Barnett, P.,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7.

Barth, M., *Ephesian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Chapters 1–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Marshall, I. H.,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8.

Michaels, J. R.,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0.

Thrall, M. 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of the Corinthians*, 2 vols, London: T&T Clark, 2004.

<Abstract>

An Examination of Parenthetical Phrases in the New Testament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Cases of Describing Concurrent Situations and Detailed Information

Jaecheon Cho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is subsequent to the previous investigation of 29 parenthetical phrases in the NT of NKRV (1998). Those 29 phrases belong to three categories: translatory notes (X10), asides (X4), and causal explanations (X15). This time we examine 13 parenthetical phrases in two categories: ten describing concurrent situations (John 6:23; 1 Cor 7:10b, 12b; 1 Cor 7:11a; 2 Cor 12:2b, 3b; Gal 2:6b; Eph 2:5b; Col 4:10b; Rev 20:5a) and three presenting detailed information about preceding statements or descriptions (Luke 24:10; John 4:2; 7:22b).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rom our analysis: (1) In six of thirteen passages (1 Cor 7:11a, 2 Cor 12:2b, 3b; Gal 2:6b; Col 4:10b; John 4:2), the parenthetical phrase should be kept. They help readers to understand the passage more quickly and accurately. In one verse (Col 4:10b), however, the parenthesis should be relocated. (2) In five of thirteen passages (Luke 24:10; John 6:23; 7:22b; Eph 2:5b; Rev 20:5a), the parentheses should be removed and the verse should be printed as it is. There, the parentheses potentially limit the interpretation of the given passage, or even cause the reader to misunderstand the author's intention. In the case of John 6:23, if the translator wants to keep parentheses, they should begin at verse 22. (3) In the remaining two passages (1 Cor 7:10b, 12b), it makes little difference whether the parentheses are kept or removed. In general, parentheses are part of translation, and they are not immune from theological tendencies of the translators. The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into Korean shows that theological, even political, agendas have been at work in the actual process of translation. It is hard, however, to evaluate, let alone identify, any theological agenda of individual translators. It is more productive, therefore, that we focus on the question of Vorlage than on the personal traits, theological or otherwise, of individual translators. The *Shyong-gyong-gae-yok*, or Revised Korean Bible (1938) should be the center of our perusal, as it was the first and the most authoritative Korean translation to use

parenthetical phrases. Some of the parenthetical phrases in it are justifiable, and others are not. As a new revision of NKRV is currently in preparation, our findings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among the revisors. This study may also stimulate further studies on various paratextual elements included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s, such as paragraph division, paragraph titles, text-critical notes, citations of quotes and so on.

<부록 1>『개역개정』과 그것의 추정 저본에서 괄호 어구 비교

『개역개정』	KJV (1611)	ERV (1881)	NTG[12] (1923)	『셩경 개역』 (1938)
마 24:15하	괄호	괄호		괄호
막 7:3-4			줄표	괄호
막 13:14중	괄호	괄호		괄호
막 15:22중				괄호
눅 8:29하	괄호(29절 전체)			괄호
눅 23:51상	괄호	괄호	줄표	괄호
눅 24:10				괄호
요 1:38하	괄호	괄호	괄호	괄호
요 1:41하		괄호	괄호	괄호
요 1:42하		괄호	괄호	괄호
요 4:2	괄호	괄호		괄호
요 6:23	괄호	괄호		괄호
요 7:22중	괄호	괄호		괄호
요 7:39하	괄호(39절 전체)			괄호
요 9:7중	괄호	괄호	괄호	괄호
요 19:13중				괄호
요 19:17중				괄호
요 20:9하				괄호
요 20:16하			괄호	괄호
행 1:18-19	괄호	괄호		괄호
행 4:36중	괄호	괄호		괄호
행 13:8중	괄호	괄호		괄호
롬 2:14-15				괄호
고전 7:10중				괄호
고전 7:11상		괄호	줄표	괄호
고전 7:12중				괄호
고후 12:2하	괄호	괄호	줄표	괄호
고후 12:3하	괄호	괄호	줄표	괄호
갈 2:6중	괄호	괄호	줄표	괄호
엡 2:5하	괄호	괄호	줄표	괄호
골 2:21-22상	괄호	괄호(22상반절만)		괄호(22상반절만)
골 4:10하	괄호	괄호	괄호	괄호
살후 1:10하	괄호	괄호		괄호

『개역개정』	KJV (1611)	ERV (1881)	NTG[12] (1923)	『셩경 개역』 (1938)
딤전 3:5	괄호	괄호	괄호	괄호
딤후 1:18상		괄호	줄표	괄호
히 7:11중	괄호	괄호		괄호
히 7:19상		괄호		괄호
히 7:21	괄호	괄호	줄표	괄호
히 10:8하		괄호		괄호
히 11:38상	괄호	괄호		괄호
벧후 2:8	괄호	괄호	줄표	괄호
계 20:5상				괄호